

지역 기록화 사업의 평가지표 개발*

A Study on Development of Evaluation Indicators for Locality Documentation Programs

홍명화 (Myung-Hwa Hong) **

이혜은 (Hye-Eun Lee) ***

목 차

- | | |
|-------------------------------|----------------------------|
| 1. 서론 | 3. 지역 기록화 사업의 평가지표 개발 및 검증 |
| 2. 지역 기록화 관련 사례 분석 및 논리 모델 개발 | 4. 결론 및 제언 |

초 록

본 연구는 지역 기록화 사업의 지속 가능성을 위해 '평가'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지역 기록화에 적절한 평가지표를 개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이를 위해 사업 단위 평가에 적합한 평가 모델인 논리 모델을 이론적 틀로 하여 투입, 활동, 산출, 성과, 영향 5개 평가요소와 27개 세부지표를 도출하였다. 또한 전문가 대상 AHP 설문 조사 및 심층 면담을 통해 도출된 지표를 검증하였다. 연구의 결과, 지역 기록화 사업 평가요소의 중요도는 투입요소가 0.312로 가장 높았고, 활동요소가 0.190으로 뒤를 이었다. 즉 지역 기록화 사업은 산출과 성과에 집중하기보다 적절한 투입이 있는지, 활동을 잘 하고 있는지를 평가하는 것이 중요하다. 투입지표 중 전담인력의 배치 0.263, 활동지표 중 수집정책 수립 0.262, 산출지표로는 디지털 아카이브 구축 0.305, 성과지표로는 기관의 역할 강화 0.367, 영향요소로는 지역 정체성 확립 0.453이 중요도가 높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러한 평가지표는 지역 기록화 사업의 계획과 실행, 평가에 활용되어 해당 사업의 지속 가능성을 향상시키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

ABSTRACT

Recognizing the need for evaluation to ensure the sustainability of locality documentation programs, this study developed appropriate evaluation indicators for locality documentation programs. To this end, this study used a logic model as the theoretical framework and derived five evaluation factors (input, activity, output, outcome, and impact) along with 27 detailed indicators. In addition, an AHP survey and in-depth interviews were conducted with experts to validate the derived indicators. As a result of the study, the importance of the 'evaluation factors' was highest for the 'input' at 0.312, followed by the 'activity' at 0.190. In other words, in local documentation programs, it is more important to evaluate whether appropriate inputs are in place and whether the activities are being carried out well, rather than focusing on the output. Among the indicators within each evaluation factor, the most important were identified as follows: dedicated personnel 0.263 for input, establishing collection policy 0.262 for activity, building a digital archive 0.305 for output, strengthening the role of the institution 0.367 for outcome, and establishing regional identity 0.453 for impact. It is hoped that the results of this study will be used in the planning, operation, and evaluation of locality documentation programs and help improve the sustainability of the programs.

키워드: 지역 기록화, 지역 아카이브, 논리 모델, 평가, 평가지표

Locality Documentation, Regional Documentation, Local Archives, Logic Model, Evaluation, Evaluation Indicators

* 이 논문은 숙명여자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지역 기록화 사업의 평가지표 개발" 중 일부를 요약·수정한 것임.

** 국립세계문화박물관 학예연구관(hongmh@mow.or.kr / ISNI 0000 0005 2687 5865) (제1저자)

*** 숙명여자대학교 문헌정보학과 부교수(helee@sookmyung.ac.kr / ISNI 0000 0004 6814 4289) (교신저자)

논문접수일자: 2025년 4월 16일 최초심사일자: 2025년 4월 30일 게재확정일자: 2025년 5월 8일

한국문헌정보학회지, 59(2): 125-148, 2025. <http://dx.doi.org/10.4275/KSLIS.2025.59.2.125>

※ Copyright © 2025 Korean Society for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This is an Open Access article distributed under the terms of the Creative Commons Attribution-NonCommercial-NoDerivatives 4.0 (<https://creativecommons.org/licenses/by-nc-nd/4.0/>) which permits use, distribution and reproduction in any medium, provided that the article is properly cited. the use is non-commercial and no modifications or adaptations are made.

1. 서 론

1.1 연구의 배경과 목적

2019년 일부 개정된 「공공기록물법」은 지방 기록물관리기관이 관할 지역과 관련하여 보존 가치가 높은 민간기록물을 수집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제46조 2)을 신설하였고, 지방기록물관리기관 및 지자체 기록관에서는 「민간기록물 수집 및 관리 조례」가 제정되고 있다. 「제4차 도서관발전 종합계획(2024~2028)」은 지역 소멸·변형으로 민간기록물의 급격한 소실에 대한 대비가 필요하며 지역 아카이브 구축, 지역자료의 수집력 강화 등을 추진 과제로 제시하였다. 「박물관·미술관 진흥 중장기 계획(2019~2023)」은 지역특화 박물관의 조성과 지역사회 네트워크 강화를 주요 과제로 하였다. 이와 같이 현대 사회에서 빠르게 변화하고 사라지는 지역의 모습을 보존해야 한다는 인식이 확산되면서 기록관, 도서관, 박물관 등을 비롯하여 다양한 분야에서 지역을 기록하고자 하는 움직임이 활발히 일어났다.

Cox(2001)는 개인이 문화적, 정치적, 사회·경제적, 역사적 또는 다른 이유로 동일시하는 이웃 또는 카운티, 도시, 지역에 이르는 지리적 영역을 '로컬리티(locality)'로 정의하였다. '기록화(documentation strategy)'란 특정한 지리적 영역이나 커뮤니티, 주제, 사회의 사건 또는 과정에 대한 적절한 정보의 선별과 보유에 관한 방법론이다(Society of American Archivists, [n.d.]). 본 연구는 Cox(2001)의 정의에 기반하여 문화적, 역사적, 정치적, 사회·경제적 이유로 일체감을 가지는 지역 커뮤니티 및 마을,

도시 등 특정한 지리적 영역에 관한 기록을 수집 또는 생산하는 활동을 '지역 기록화'로 정의한다(홍명화, 이해은, 2023).

우리나라 공공 부문에서 지역 기록화는 여러 주체에 의해 다양한 목적과 내용으로 진행되고 있다. 서울기록원의 서울기록화 사업, 경기도사 이버도서관의 경기도 메모리, 국립민속박물관의 지역 민속조사 및 아카이빙 사업이 있으며, 지방자치단체의 도시 또는 문화 관계 부서에서도 도시·문화 정책의 일환으로 도시역사문화 아카이브, 도시경관 기록화, 도시재생사업 기록화 사업 등이 활발히 진행되고 있으나, 사업의 과정과 결과에 대한 평가는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

모든 사업은 수행 후 평가와 환류의 단계를 거치는 것이 필수적이며, 이를 통해 사업의 효과성을 입증하고 지속적인 운영의 정당성을 확보할 수 있다. 특히 지역 기록화 사업은 공공 자금이 투입되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사업들로 사업의 성과에 대한 평가가 이루어져야 한다(이성우, 장성희, 2020). 우리나라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는 매년 '정부업무평가'를 비롯하여 '기록관리 평가', '공공도서관 운영평가', '박물관·미술관 평가인증제' 등을 실시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평가제도는 기관 단위 평가로 지역 기록화 사업이라는 단위 사업에 적용하기에는 적합하지 않다. 지역 기록화 사업은 그 양적 확장에 비해 프로그램을 평가할 수 있는 평가도구가 전무하며, 수행기관의 평가제도는 기관 차원의 평가만이 실시되고 있어 지역 기록화 사업에 초점을 맞춘 정보를 제공하지 못하고 있다. 이러한 점에 주목하여 본 연구는 공공 자금이 투입되는 국·공립 기록

물관리기관, 박물관, 도서관, 지자체 등의 지역 기록화 사업을 대상으로 단위 사업의 평가에 적합한 평가 모델인 논리 모델(logic model)을 이론적 틀로 삼아 그 성과를 측정할 수 있는 평가 지표를 개발·제안하고자 한다.

1.2 연구의 내용과 방법

전술한 연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연구의 구체적인 내용과 방법은 다음과 같다.

첫째, 지역 기록화 관련 국내 법령 조사를 실시하였다. 지역 기록화 사업은 지자체의 도시·문화 관계 부서, 기록물관리기관, 도서관, 박물관 등을 중심으로 수행되므로 「자치법규정보시스템」에서 관련 키워드인 「기록화」, 「아카이브」, 「민간기록물」로 검색한 결과 「민간기록물의 수집 및 관리에 관한 조례」 23건, 「도시역사문화 아카이브 구축 및 운영 조례」 13건, 「경관 조례」 133건을 대상으로 선정하였다.

둘째, 국내 지역 기록화 사업 사례를 조사하였다. 기록물관리기관, 박물관, 도서관의 경우 사업을 3년 이상 운영한 사례를 선정하였다. 기록물관리기관은 「국가기록원 관할 기록관 변동내역 고시문(2024)」, 박물관은 「전국문화기반시설 총람(2023년)」에서 기관 현황을 참고하여 홈페이지, 디지털아카이브를 방문하여 지역 기록화 사업을 3년 이상 운영한 사례를 선정하였다. 국가기록원의 「기록사랑마을 지정 및 지원사업」(2008~2016년), 서울기록원의 「서울기록화 사업」(2014년~현재), 경남기록원의 「민간기록 아카이브 사업」(2021년~현재), 중평기

록관의 「증평 아카이빙 프로젝트」(2017년~현재), 국립민속박물관의 「지역·도시 민속조사 사업」(2005년~현재), 서울역사박물관의 「서울 생활문화 자료조사 사업」(2007년~현재)이 대상이다. 도서관의 경우 선행연구(신정아, 2020; 윤명희, 2023)를 통해 사례가 소개된 경기도사이버도서관의 「경기도 메모리」(2014년~현재), 광주중앙도서관의 「휴먼 in PAJU」 등 기록화 사업(2017년~현재)을 대상으로 하였다.

지자체 도시·문화 관계 부서의 경우 사업 시행 여부를 전수 조사하여 대상을 선정하였다. 도시역사문화 아카이브 사업은 「도시역사문화 아카이브 구축 및 운영 조례」를 제정한 13개 지자체 중 8개 지자체가, 도시경관 기록화 사업은 「경관 조례」에 도시경관 기록화 사업을 명시한 133개 지자체 중 9개 지자체가 사업을 수행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조사 방법은 선행 연구(인천광역시, 2018; 하승용, 2019), 포털에서 관련 보도자료와 기사 검색, 각 조례의 제정 연도를 전후로 관리책임 부서의 예산서에서 해당 사업의 수행 여부를 확인하였다. 도시재생 기록화 사업은 국가종합전자조달(나라장터)에서 「도시재생 기록화」, 「도시재생 아카이브」로 검색하여 2016~2023년까지 38건 사업을 대상으로 선정하였다.

셋째, 국외 지역 기록화 관련 매뉴얼과 평가 가이드 사례를 조사하였다. 미국 주아카이브협의회(Council of State Archivists, CoSA)의 「주 아카이브 목록」¹⁾에서 제공하는 56개 기관의 웹사이트를 방문하여 지역 기록화를 위한 매뉴얼 또는 평가 가이드 게시 여부를 확인하

1) CoSA > About Us > Member Directory(2025.4.14.) <https://business.statearchivists.org/directory>

고 이를 제공하고 있는 5개 사례를 선정하였다. 뉴욕주아카이브의 「기록화 기초: 기록화 프로젝트 계획·관리 매뉴얼(2003)」, 조지아주역사기록자문위원회의 「조지아의 기록유산 보존: 역사기록 리포지토리를 위한 자체평가 가이드(2010)」, 몬태나주역사기록자문위원회의 「역사기록 저장소를 위한 모범사례: 매뉴얼 및 자체 평가 체크리스트(2004)」, 노스캐롤라이나주역사기록자문위원회의 「과거의 미래 보장하기: 아카이브 프로그램의 시작·선별하기 위한 가이드(2003)」, 뉴저지주아카이브의 「뉴저지주 역사기록의 보존·수집·이용을 개선하기 위한 전략계획(2001)」을 선정하였다.

국내 법령 및 국내·외 사례는 공통적인 조사 항목으로 ① 추진배경, ② 목적, ③ 대상지, ④ 투입(제도·예산·인력·시설), ⑤ 활동, ⑥ 산출을 정하여 정리하였다. 또한 각 사업의 자료 조사 방법은 정보공개된 사업계획서, 결과보고서, 제안요청서와 과업지시서, 예산서, 선행연구 및 디지털아카이브를 활용하였다.

넷째, 국내 법령 및 국내·외 사례를 조사·분석하여 논리 모델(logic model)로 구현하였다. 논리 모델은 단위 사업의 성과를 측정하는 도구로 프로그램의 투입에서 결과에 이르는 일련의 과정을 명확하게 설명하여 프로그램의 계획과 실행, 평가에 전반적으로 활용될 수 있다(Kellogg Foundation, 2004). 논리 모델은 '계획된 작업(planned work)'과 '의도된 결과(intended results)'로 구성되며, '계획된 작업'은 프로그램에 투입하는 자원과 실행하고자 하는 활동이다. '의도된 결과'는 프로그램에서 원하는 모든 결과(산출·성과·영향)이다(McLaughlin & Jordan, 1999). 논리 모

델은 프로그램의 '투입(resources, inputs)', '활동(activities)', 그리고 달성하고자 하는 '산출(outputs)', '성과(outcomes)', '영향(impact)' 5단계로 구성되며, 각 요소 간 관계를 표와 흐름도 형식으로 표현한다(Kellogg Foundation, 2004). 앞서 관련 법령 및 사업 사례를 추진배경, 목적, 투입(제도·예산·인력·시설), 활동, 산출이라는 공통적인 항목으로 조사하였고, 이를 바탕으로 지역 기록화 사업의 투입, 활동, 산출, 성과, 영향요소를 도출하였다. 성과와 영향의 경우 '추진배경'과 '목적' 항목을 분류·정리하여 도출하였다.

다섯째, 지역 기록화 사업의 논리 모델을 토대로 투입, 활동, 산출, 성과, 영향 5개 요소에 대해 27개 평가지표를 도출하고, 도출된 지표의 검증을 위해 전문가 대상 계층 분석법 (Analytic Hierarchy Process, 이하 AHP) 조사 및 심층 면담(in-depth interview)을 실시하였다. 먼저 평가지표의 중요도에 대해 전문가 43명 대상 AHP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AHP 기법은 1971~1975년 Thomas T. Saaty에 의해 개발되었으며 문제를 세분화·계층화하는 다중 기준 의사결정 방법으로(Saaty, 1987; 1990), 정량적 분석이 어려운 의사결정에서 전문가 집단의 경험·지식 등을 객관적으로 반영할 수 있다(木下 純藏, 大屋 隆生, 2007). 분석 절차는 문제의 계층구조화 → 쌍대비교와 중요도 설정 → 일관성 검증 및 중요도 평가로 진행하였다.

평가지표 중요도 조사 결과에 대해 전문가 8명 대상 심층 면담을 실시하였다. 질적 연구방법 중 하나인 심층 면담은 설문조사 등 양적 연구가 포착하지 못하는 연구 참여자의 동기나 태도, 의견 등을 파악할 수 있다(Creswell, 2003).

심층 면담을 통해 앞서 실시한 AHP라는 통계적 방법으로 드러나지 않는 ‘왜 이러한 중요도가 도출되었는가?’에 대한 해석을 얻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였다. 면담은 반구조화된 방식으로 AHP 조사 결과에 대한 참여자들의 의견과 경험 등을 질의하였다. 면담 자료의 분석은 Elo 와 Kyngäs(2008)의 질적 내용 분석(qualitative content analysis)을 근거로 평가요소 및 투입, 활동, 산출, 성과, 영향 7개 주요 범주(main-categories)에 대해 26개 하위 범주(sub-categories), 49개 코드를 도출하였다.

1.3 선행 연구

본 연구와 관련된 선행 연구는 지역 기록화에 관한 연구와 평가에 관한 연구로 나눌 수 있다.

국내에서 지역 기록화라는 주제를 다룬 초기 연구로 권순명과 이승희(2009)는 공공 기록관리에서 나아가 민간 영역의 기록에 관심을 가져야 하며, 특히 지역과 지역성을 기반으로 한 지역 아카이빙이 필요하다고 하였다. 이후 서울 성미산 마을(최윤진, 2011), 부산 산복도로(김화경, 2012), 부산 동해남부선(설문원, 김정현, 2013), 서울시 마을공동체(이경래, 2015), 광주 양림동(여진원, 장우권, 2016), 대전 원도심(손원태, 2016), 대구 약전골목(엄소영 외, 2017), 강원도(유혜림, 2018), 서울 성북구(이희숙, 2019), 성남시(엄수용, 2020), 증평(이정연, 2021) 등 특정 지역을 대상으로 지역 기록화 방안과 사례를 제시하는 연구가 이루어졌다.

공공 부문 평가 연구로 Wholey et al.(2010)는 프로그램 평가란 프로그램의 기본 논리, 활동과 결과에 대한 의문을 해결하기 위해 체계

적인 방법을 적용하는 것이며, 유용한 평가는 프로그램 성과를 개선할 수 있어야 한다고 하였다. Andersen et al.(2016)은 공공 조직의 성과(performance) 개념을 논의하였다. 성과를 분석할 때 개인, 그룹, 조직 또는 프로그램 등 누구의 성과를 분석할 것인지가 중요하며 공공 조직의 경우 ‘프로세스 중심’의 성과에 주목해야 한다. Moynihan et al.(2011)은 기준 성과 측정은 공공 조직의 목표를 미션 달성을 비용 효율성 측면에서 좁게 정의하고 민주적 가치를 간과해왔으며, 이에 따라 성과 측정은 현대 거버넌스의 협력적이고 글로벌한 특성, 시민의 권리와 견해를 통합하는 민주적 가치를 반영해야 한다고 하였다. 이것은 투입·산출·결과 사이의 연결고리를 제시하는 성과 논리 모델을 통해 측정될 수 있다. 라영재(2020)는 우리나라 정부업무평가가 책무성 중심의 평가임을 지적하고, 사업 단위 평가는 프로그램 논리 모형에 의한 평가를 실시하는 것이 평가의 신뢰성을 확보할 수 있다고 하였다.

그동안 지역 기록화의 방법론과 개별 사례 연구는 상당히 축적되었으며, 다음 단계로 고민해야 할 것은 지역 기록화의 지속 가능성이 다. 이를 위해 중요한 것은 ‘평가’이나, 현재 지역 기록화 사업의 평가에 관한 연구는 이루어지지 않았다. 본 연구는 지속 가능한 지역 기록화를 위한 방안으로써 지역 기록화 사업의 평가지표를 개발하였다. 한편 공공 영역 및 프로그램 평가에 관한 선행 연구를 살펴본 결과 평가의 동향이 프로그램의 직접적·정량적 산출에서 그 산출로 인한 변화와 영향력을 측정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었다. 그리고 이를 측정하는 도구로 ‘논리 모델(logic model)’이 활

발히 활용되었다. 이에 따라 본 연구는 논리 모델을 바탕으로 지역 기록화 사업의 평가지표를 개발하였다. 본 연구는 사업 단위 성과를 측정 할 수 있는 논리 모델을 이론적 틀로 하여 지역 기록화 사업의 평가를 시도하였다는 점에서 차별성과 의의를 지닌다.

2. 지역 기록화 관련 사례 분석 및 논리 모델 개발

2.1 국내 지역 기록화 관련 법령

민간기록물 조례 23건²⁾은 민간기록물 수집·관리를 위해 무엇이 투입되고 어떤 활동이 이루어져야 하는지를 규정하였다. 조례는 '투입' 요소로 인력과 시설을 제시하였다. 인력과 관련하여 위원회, 기록조사원, 시설과 관련하여 보존공간 등 조항을 두었다. 민간기록물 수집·관리 '활동'으로 기본계획의 수립, 수집방법, 관리 및 활용 등 조항을 두었다. 도시역사문화 아카이브 조례 13건³⁾ 역시 도시역사문화 아카이브를 위한 투입과 활동, 산출 관련 조항을 규정하였다. '투입' 관련 조항으로 전문인력, 업무의 위탁, 시민활동가 및 보관장소 등이 있다. 또한 도시역사문화 아카이브 '활동' 관련 조항으로 계획 수립, 기록물 생산, 실물자료 수집 등이 있다. 활동의 결과인 '산출'과 관련하여 공개, 대여, 활용 조항을 두었다. 경관 조례 133건⁴⁾의

경우 '경관사업의 대상' 조항에 도시경관 기록화 사업을 포함하고 있을 뿐 구체적인 투입과 활동, 산출 등을 명시하지 않았다.

2.2 국내 지역 기록화 사업 사례

서울기록원의 '서울기록화 사업', 경남기록원의 '민간기록 아카이브 사업', 증평기록관의 '증평 아카이빙 프로젝트'는 조례에 근거하여 정규 예산 또는 보조금 및 전담 인력, 외주 인력, 지역 민 등이 투입되어 다양한 활동이 이루어졌다. 서울 기록화는 서울의 정체성과 다양성을 반영하는 기록문화 생태계를 조성하는 것을 사명으로 하며(서울기록원, 2016), 수집전략 개발부터 기록물 수집, 다큐멘터리 아카이빙, 네트워크 운영 등 다양한 활동을 수행하고 결과물로 아카이빙북 발간, 서울기록페어 개최 등이 이루어졌다. 증평 아카이빙 사업은 주민 주도의 아카이빙을 지향하며 증평 기록가 양성을 핵심 사업으로 하였다(이정연, 2021; 신유림, 2019). 한편 국가기록원의 '기록사랑마을 사업'은 가시적 성과물이라고 할 수 있는 전시관이 조성되었으나 지속적인 운영의 문제가 제기되었다.

국립민속박물관의 '지역·도시 민속조사 사업'은 지역·도시 민속에 대한 학술적 재조명을 목적으로 하였고(국립민속박물관, 2007), 서울역사박물관의 '서울 생활문화 자료조사 사업'은 서울의 공간과 생활사에 대한 총체적 조사를 목적으로 하였다(서울역사박물관, 2021). 두

2) 제주, 경남, 충남, 대구, 대전, 전남, 세종, 전북, 충북, 전주, 파주, 정읍, 신안, 익산, 서울 성북구, 보령, 하남, 당진, 김제, 나주, 해남, 서울 금천구, 부안(2024년 기준).

3) 성남, 양산, 순천, 여수, 의정부, 김포, 연천, 대전 대덕구, 광양, 평택, 용인, 완도, 부산 영도구(2024년 기준).

4) 강원, 인천, 서울 등 광역지자체 14건, 강원도 정선 등 기초지자체 119건(2023년 기준).

사업은 모두 정규 예산으로 편성되어 전담 인력 및 대학과 연구기관, 사진작가, 자문위원 등이 투입되었다. 또한 지자체, 자치구청 등과 연계하여 사업을 수행하였고 결과물로 디지털아카이브를 구축하였다.

경기도사이버도서관의 ‘경기도 메모리’, 광주중앙도서관의 ‘휴먼 in PAJU’ 등 기록화 사업은 정규 예산, 전담 조직·인력이 투입되었다. 경기도 메모리 사업은 지역 문화기관, 공공 기관 등과 협력을 기반으로 아카이브 플랫폼을 구축하였다. 광주중앙도서관은 시민채록단 양성, 민간기록물 공모전 등 활동을 진행하였으며, 광주의 정체성을 담은 자료를 수집·제공함으로써 도서관의 자료와 서비스 범위가 증대하였다(윤명희, 2023).

김포시(김포 역사문화 디지털아카이브) 등 8개 지자체⁵⁾는 도시역사문화 아카이브를 구축·운영하였다. 도시역사문화 아카이브 사업의 목적은 지역 역사·문화 자료를 문화자산으로 보존하고 지역의 정체성을 확립하는 것이다(평택시, 2020; 연천군, 2022). 사업은 모두 조례를 근거로 수행되었고 예산이 지속적으로 편성되었다. 사업은 지자체 문화체육과 등 전담 부서 또는 지방문화원, 지역문화재단이 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하였다. 도시역사문화 아카이브의 활동은 지역 조사 및 자료 수집이 중심이었으며, 사업의 산출물로는 출판물이 가장 많았다.

서울시 등 9개 지자체⁶⁾에서 도시경관 기록화 사업이 실시되었다. 1995년 서울시에서 처

음으로 경관 기록화 사업을 시작하였으며, 사업은 조례에 근거하고 정규 예산, 전담 부서와 대학·산학협력단 등 인력이 투입되어 비교적 안정적으로 수행되었다. 경관 기록화 활동은 자연, 시가지, 도시기반시설 등 경관 촬영이 중심이었고, 주로 사진기록을 생산하는 만큼 결과물로 사진집을 발간하였고 디지털아카이브를 구축하기도 하였다.

도시재생 기록화 사업으로 2016년 서울시의 ‘정비사업 역사·생활문화 유산 등 전수조사’부터 2023년 익산시의 ‘금마고도지역 도시재생 뉴딜사업 모니터링 및 기록화’까지 총 38건을 조사하였다. 사업에는 정규 예산이 투입되었고 지자체 도시재생과 등에서 주관하였다. 사업의 활동은 주로 도시재생 추진 과정과 전후 모습을 기록화하였다. 결과물은 사진·영상·목록 등 기초데이터로만 납품되었고 이후 관리 주체나 상황을 파악할 수 없었다.

2.3 국외 지역 기록화 관련 매뉴얼과 평가가이드

뉴욕주아카이브의 「기록화 기초(2003)」 가이드는 기록화 절차를 설명하고 기록화 프로젝트에 무엇이 투입되고 어떤 활동이 이루어져야 하는지, 그리고 기록화의 단기적인 산출물과 장기적인 성과를 제시하였다. 기록화에 ‘투입’해야 하는 요소로 담당자, 매개자나 조사요원, 자문위원회 등 인력과 자금, 보존공간이 있다.

5) 김포시(2016~), 양산시(2017~), 성남시(2020~), 순천시(2020~), 평택시(2020~), 의정부시(2021~), 대덕구(2021~), 연천군(2021~).

6) 서울시(1995~), 인천시(2008~), 대전시(2011~), 대구시(2013~), 울산시(2014~), 전주시(2015~), 광주시(2019~), 평창군(2020~), 화순군(2022~).

기록화 ‘활동’으로 기록화 주제 선정 및 프로젝트 계획, 기록물의 조사, 평가, 정리·기술 등을 수행한다. 기록화 결과물은 수집기록물과 목록, 검색도구, 디지털아카이브, 보고서 등이 있다. 기록화 프로젝트의 장기적 성과로 기록화 대상·주제 또는 리포지토리에 대한 인지도 상승, 기록에 대한 인식 제고, 기록관리 발전 등을 기대할 수 있다.

조지아주, 몬태나주, 노스캐롤라이나주 아카이브 또는 주역사기록자문위원회의 매뉴얼과 가이드는 아카이브 프로그램의 운영을 위한 일반적인 요소를 안내하였다. 지역 기록유산의 보존을 위한 ‘투입’ 요소로 법률·조례·정관 등 법적 권한, 자금, 직원·자원봉사자·컨설턴트 등 인력, 보관시설이 있다. ‘활동’ 요소는 수집정책 수립, 기록물 평가·정리, 보존환경 관리 등이다. ‘산출물’로는 수집기록물과 참고 서비스, 전시회·워크숍과 같은 아웃리치 프로그램 등이 포함된다.

뉴저지주아카이브는 역사기록의 수집·보존·이용을 위한 ‘활동’으로 지역 커뮤니티의 기록물 수집, 주 전역의 목록 구축 및 공동 리포지토리 설립, 역사기록 담당자 교육, 리포지토리와 교육 기관 간 협력 강화 등을 제시하였다. 또한 성과 지표로 수집기록물 및 목록, 각종 보고서, 관련 프로그램 개최 횟수 등을 제시하였다.

이상 살펴본 국내 관련 법령 및 국내·외 사례를 통한 투입, 활동, 산출, 성과, 영향 요소의 도출 현황은 〈표 1〉에 정리하였다.

2.4 지역 기록화 사업의 논리 모델 개발

지역 기록화 사업의 논리 모델, 즉 투입, 활

동, 산출, 성과 및 영향요소를 도출하였다.

지역 기록화 사업을 수행하기 위해 ‘투입’되는 요소는 크게 법적 근거, 예산, 인력, 시설이다. 지역 기록화 사업에 자원을 투입하여 수행되는 ‘활동’은 수집정책 및 계획 수립, 기록의 수집, 관리, 컨설팅·지원으로 도출하였다. 지역 기록화 활동의 결과 직접적으로 생산·제공되는 ‘산출’은 수집기록물 수량, 보고서 발간, 디지털 아카이브 구축, 기록활용 서비스 제공, 시설 조성으로 도출하였다. 관련 법령 및 국내·외 사례에서 ‘추진배경’, ‘목적’으로 기술된 내용 중 지역 기록화 사업으로 인한 조직·기관 및 개인 단위의 변화에 해당하는 경우 ‘성과’ 요소로, 지역사회 단위의 변화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영향’ 요소로 도출하였다. 각 사례별 추진배경과 목적을 유사한 내용끼리 묶어 ‘성과’ 요소는 기관 본연의 역할 강화, 대중의 기록에 대한 접근성 향상, 대중의 기록관리 인식·참여 향상으로, ‘영향’ 요소는 지역 정체성 확립, 지역의 기록문화 확산, 미래 가치 창출로 분류·정리하였다.

3. 지역 기록화 사업의 평가지표 개발 및 검증

3.1 평가지표 개발

지역 기록화 사업의 평가지표는 투입, 활동, 산출, 성과, 영향 5개 요소 및 요소별 27개 지표를 도출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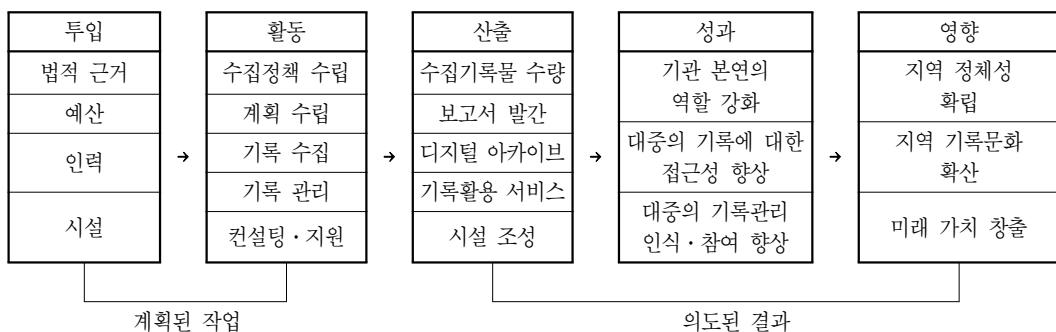
첫째, ‘투입’ 요소는 지역 기록화 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인적·물적 자원이 적정한지를 평가하는 지표로 법적 근거, 예산, 인력, 시설을 설정

〈표 1〉 지역 기록화 사업의 구성요소 도출

구성요소			출처																	
요소1	요소2	요소3	A1	A2	B1	B2	B3	B4	B5	B6	B7	B8	B9	B10	B11	C1	C2	C3	C4	C5
투입	법적 근거	법률·조례 등	-	-	-	○	○	○	-	-	-	○	○	○	-	-	○	○	-	-
	예산	정규예산	-	-	○	○	○	-	○	○	-	○	○	○	○	○	○	○	○	○
		보조금	-	-	-	-	○	-	-	○	-	○	-	○	○	○	○	○	○	○
		기타	-	-	-	-	-	-	-	-	-	-	-	-	○	○	○	○	○	○
	인력	전담인력	-	○	○	○	○	○	○	○	○	○	○	○	○	○	○	○	-	○
		자문위원회	○	○	-	○	○	○	-	○	-	○	○	-	-	○	○	○	○	○
		지역민	○	○	○	○	○	○	○	○	-	○	○	-	○	-	-	-	-	-
		지역기관 협력체계	-	-	-	○	-	○	-	○	○	-	-	-	-	-	-	-	-	○
	보존시설	서고·수장고 등	○	○	-	○	○	○	○	○	-	○	○	-	-	○	○	○	○	○
활동	수집정책 수립	수집정책	-	-	-	○	-	○	-	-	-	-	-	-	-	○	○	○	○	-
	계획 수립	중장기·연간·기본계획	○	○	○	○	○	○	○	○	○	-	○	○	○	○	○	○	-	-
	기록 수집	기록 조사	-	○	-	○	-	○	○	○	-	-	○	-	○	○	-	-	○	○
		기록 수집	○	○	○	○	○	○	○	○	○	○	○	○	○	○	○	○	○	○
	기록 관리	정리·기술	○	-	-	○	-	○	○	○	○	-	○	-	○	○	○	○	○	○
		보존	○	○	○	○	○	○	○	○	-	-	○	-	-	○	○	○	○	○
	컨설팅·지원	컨설팅·네트워킹	-	-	○	○	○	○	-	-	○	○	○	-	○	-	○	-	○	○
		기록화 활동 지원	-	-	○	-	-	○	-	-	○	-	-	-	-	○	○	-	-	○
산출	보고서 발간	보고서·자료집 등	-	-	-	○	○	○	○	○	-	○	○	○	○	○	-	-	-	○
	수집기록물 수량	문서·사진·영상 등	○	○	○	○	○	○	○	○	○	○	○	○	○	○	○	○	○	○
	디지털 아카이브	관리·서비스시스템	○	○	-	○	○	○	○	○	○	-	○	○	-	○	○	-	-	-
	기록활용 서비스	전시·교육·행사 등	-	-	-	○	-	○	○	○	○	-	○	○	○	○	○	-	○	-
	시설 조성	전시관·기록관 등	-	-	○	-	-	○	-	-	-	○	○	-	-	-	-	-	-	-
성과	기관 본연의 역할 강화	-	○	-	○	-	-	○	○	○	○	○	○	○	-	○	○	○	○	○
	대중의 기록 접근성 향상	-	-	-	○	-	-	○	-	-	○	-	○	-	-	-	○	-	-	-
	기록관리 인식·참여 향상	-	-	-	○	○	○	○	-	○	-	-	-	-	○	-	-	-	-	○
영향	지역 정체성 확립	-	-	-	-	○	-	-	-	○	-	○	-	○	○	○	-	-	-	-
	기록문화 확산	-	-	-	-	○	○	○	○	-	-	○	-	-	-	-	-	-	-	-
	미래 가치 창출	-	-	-	-	-	○	-	○	○	-	-	-	-	○	-	-	-	-	○

(A1 민간기록물 조례, A2 도시역사문화 아카이브 조례, B1 국가기록원의 기록사랑마을 사업, B2 서울기록원의 서울 기록화 사업, B3 경남기록원의 지역 기록화 사업, B4 증평기록관의 증평 아카이빙 프로젝트, B5 국립민속박물관의 지역·도시 민속조사 사업, B6 서울역사박물관의 서울 생활문화 자료조사 사업, B7 경기도사이버도서관의 경기도 메모리, B8 광주중앙도서관의 지역 기록화 사업, B9 도시역사문화 아카이브 사업, B10 도시경관 기록화 사업, B11 도시재생 기록화 사업, C1 뉴욕주아카이브의 기록화 가이드, C2 조지아주역사기록자문위의 평가 가이드, C3 몬태나주역사기록자문위의 평가 체크리스트, C4 노스캐롤라이나주역사기록자문위의 매뉴얼, C5 뉴저지주아카이브의 전략계획)

〈표 2〉 지역 기록화 사업의 논리 모델



하였다. 세부지표는 ‘법적 근거 제정’, ‘예산규모의 적정성’과 ‘정규예산 편성’, ‘전담인력 배치’, ‘자문위원회 구성’, ‘지역민 참여’, ‘지역기관 협력체계’, ‘보존시설 확보’이다. 둘째, ‘활동’ 요소는 지역 기록화에서 수행되는 일련의 활동을 평가하는 지표로 수집정책 수립, 계획 수립, 기록 수집, 기록 관리, 컨설팅·지원을 설정하였다. 세부지표는 ‘수집정책 수립’, ‘계획 수립’, ‘기록 조사’와 ‘기록 수집’, ‘기록 정리·기술’과 ‘기록 보존’, ‘기록관리 컨설팅·네트워킹’과 ‘기관(단체)·개인의 기록화 활동 지원’이다. 셋째, ‘산출’ 요소는 자원을 투입하여 활동한 결과, 생산된 기록 또는 제공된 서비스의 유형과 수량에 관한 지표로 ‘수집기록물 수량’, ‘보고서 발간’, ‘디지털아카이브 구축’, ‘기록활용 서비스 제공’, ‘시설 조성’이다. 넷째, ‘성과’ 요소는 지역 기록화의 직접적·단기적인 결과로 개인과 조직 수준의 변화를 측정한다. 즉 사업 주관처와 지역 민들의 구체적인 변화를 측정하는 정성지표로 ‘기관 본연의 역할 강화’, ‘대중의 기록에 대한 접근성 향상’, ‘대중의 기록관리 인식·참여 향상’이다. 다섯째, ‘영향’ 요소는 지역 기록화의 간접적·장기적 결과로 지역사회 수준에서 기

대되는 변화를 측정하는 정성지표로 ‘지역 정체성 확립’, ‘지역 기록문화 확산’, ‘미래 가치 창출’이다. 평가요소와 지표는 〈표 3〉, 지표에 대한 설명은 〈표 4〉와 같다.

3.2 AHP를 통한 평가지표 검증

3.2.1 조사 참여자 및 자료 수집

평가지표 중요도에 대한 AHP 설문 조사는 2024년 10월 23일부터 11월 6일까지 진행하였다. 전문가 집단 75명에게 이메일로 웹 설문지 링크 또는 설문지 파일을 전송한 후 43명으로부터 회수하여 응답률은 58.6%였다. 전문가 집단은 지역 기록화 사업 실무자 및 유사한 전문성을 가지는 집단으로 지역 기록화 업무를 1회 이상 담당하였던 학예·기록연구사, 사서, 행정직 공무원 또는 지역 기록화 관련 연구자이다. AHP 조사는 소수의 전문가 집단을 대상으로 응답의 신뢰성을 확보할 수 있으며(박수정 외, 2011), 대상 집단이 동질적이고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가지고 있다면 표본 규모는 10명~15명이면 충분하다(이미숙 외, 2010). 설문조사지(〈표 5〉 참조)는 요소 간, 지표 간 쌍

〈표 3〉 지역 기록화 사업의 평가요소 및 지표 도출(안)

평가요소	평가지표		지표 출처
투입	법적 근거	법적근거 제정	B2·3·4·8·9·10, C2·3
	예산	예산규모의 적정성	B1~11, C1~5
		정규예산 편성	B1~11, C1~5
	인력	전담인력 배치	A2, B1~11, C1~3·5
		자문위원회 구성	A1·2, B2·3·4·6·8·9, C1~5
		지역민 참여	A1·2, B1~6, 8·9·11, C1
		지역기관 협력체계	B2·4·6·7, C5
활동	시설	보존시설 확보	A1·2, B2~6, 8·9, C1~5
	수집정책 수립	수집정책 수립	B2·4, C1~4
	계획 수립	계획 수립	A1·2, B1~7, 9~11, C1~3
	기록 수집	기록 조사	A2, B2·4·5·6·9·11, C1·4·5
		기록 수집	A1·2, B1~11, C1~5
	기록 관리	기록 정리·기술	A1, B2, 4~8, 10, C1~5
		기록 보존	A1·2, B1~6·9, C1~5
	컨설팅·지원	기록관리 컨설팅·네트워킹	B1~4, 7~9, 11, C2·4·5
		기관(단체)·개인 기록화 활동 지원	B1·4·7, C1·2·5
산출	수집기록물 수량	-	A1·2, B1~11, C1~5
	보고서 발간	-	A1·2, B1~11, C1~5
	디지털 아카이브 구축	-	A1·2, B2~7, 9·10, C1~3
	기록활용 서비스 제공	-	B2·4~8, 10·11, C1~3·5
	시설 조성	-	B1·4·8·9
성과	기관의 역할 강화	-	A1, B1·5~10, C2~5
	대중의 기록 접근성 향상	-	B1·4·7·9, C2
	기록관리 인식·참여 향상	-	B1~4·6·11, C5
영향	지역 정체성 확립	-	B2·6·8·10·11, C1
	지역 기록문화 확산	-	B1~4·7
	미래 가치 창출	-	B3·5·6·11, C5

(A1~C5: 〈표 1〉 설명과 동일)

〈표 4〉 지역 기록화 사업의 평가요소 및 지표 설명

평가요소 및 지표	지표 설명
투입	법적근거 제정
	사업의 수행과 운영을 보장하는 법률·조례·규정 등이 제정되어 있는가?
	예산규모의 적정성
	적절한 규모의 예산이 있는가?
	정규예산 편성
	정규예산이 편성되어 있는가?
	전담인력 배치
	전담인력이 확보·배치되어 있는가?
	자문위원회 구성
	자문위원회가 구성되어 있는가?
	지역민 참여
	지역민의 참여를 유도·보장하는가?
	지역기관 협력체계
	지역기관 간 협력체계가 구축되어 있는가?
	보존시설 확보
	수집기록물을 보존할 수 있는 시설이 확보되어 있는가?

평가요소 및 지표		지표 설명
활동	수집정책 수립	수집정책이 있는가?
	계획 수립	사업의 중장기 또는 연간·기본계획이 있는가?
	기록 조사	주제영역과 기록에 대해 사전 조사하는가?
	기록 수집	주제영역에 대한 기록을 수집하는가?
	기록 정리·기술	수집기록물을 대해 정리·기술 등을 수행하는가?
	기록 보존	수집기록물을 적정한 환경에서 보존하는가?
	기록관리 컨설팅·네트워킹	지역 기관(단체)·개인에게 기록관리 컨설팅이나 네트워킹을 제공하는가?
	기록화 활동 지원	지역 내 기관(단체)·개인의 기록화 활동을 지원하는가?
산출	수집기록물 수량	수집기록물의 수량을 얼마나 확보하였는가?
	보고서 발간	보고서나 발간물을 발간하였는가?
	디지털 아카이브 구축	디지털 아카이브를 구축·운영하였는가?
	기록활용 서비스 제공	전시·교육·문화행사 등 프로그램 개최 건수 및 참가자 수
	시설 조성	전시실·열람실 등 시설이나 공간을 조성하였는가?
성과	기관의 역할 강화	사업의 결과로 인해 기관 본연의 역할이 강화되었는가?
	대중의 기록 접근성 향상	대중의 기록에 대한 접근성이 향상되었는가?
	기록관리 인식·참여 향상	대중의 기록관리에 대한 인식 향상과 참여를 유도하였는가?
영향	지역 정체성 확립	지역 정체성을 확립하는데 어떤 영향을 끼쳤는가?
	지역 기록문화 확산	지역 기록문화 확산에 어떤 영향을 끼쳤는가?
	미래 가치 창출	지역의 경제적·사회적·문화적 가치 창출로 이어졌는가?

〈표 5〉 AHP 쌍대비교 설문지 예시

항목	중요 ← ← ←									동등	→ → → 중요									항목
	9	8	7	6	5	4	3	2	1		2	3	4	5	6	7	8	9		
투입요소																				활동요소
투입요소																				산출요소
투입요소																				성과요소
투입요소																				영향요소
활동요소																				산출요소
활동요소																				성과요소
활동요소																				영향요소
산출요소																				성과요소
산출요소																				영향요소
성과요소																				영향요소

비교 행렬을 작성하고 두 요소 간 상대적 중요도는 1~9점 척도로 배점하여 총 6문항으로 구성하였다.

회수한 설문지는 응답자가 각 쌍대비교에 대

해 일관된 논리로 답하였는지, 일관성을 검증하였다. 일관성 값은 0.1 이내이어야 한다(Saaty, 1987). 본 연구는 웹 설문지는 일관성이 0.1 이하이어야 제출되도록 설정하였고 설문지 파일

로 회신받은 경우 일관성이 0.1 이상이면 재검토를 요청하였다. 설문지 43부를 대상으로 '사회과학연구 자동화'⁷⁾의 AHP 통계 분석 기능을 활용하여 지표의 중요도와 우선순위를 도출하였다.

3.2.2 AHP 중요도 분석 결과

(1) 평가요소 및 지표 분석 결과

상위계층인 '평가요소'의 일관성 비율(CR)은 0.1 이하인 0.004965으로 유효하였다. 평가요소의 중요도는 투입(0.312), 활동(0.190), 산출(0.178), 성과(0.162), 영향(0.158) 순이었으며, 투입요소가 다른 요소에 비해 가장 중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투입요소'의 일관성 비율은 0.004865로 유효하였다. 투입지표의 중요도는 전담인력 배치(0.263)가 가장 높았고, 정규예산 편성(0.203), 예산규모 적정성(0.142), 법적 근거 제정(0.141), 지역민 참여(0.075), 보존시설 확보(0.070), 지역기관 협력체계(0.064), 자문위원회 구성(0.042) 순이었다.

'활동요소'의 일관성 비율은 0.013785이다. 활동지표의 중요도는 수집정책 수립(0.262), 계획 수립(0.216), 기록 조사(0.154), 기록 수집(0.144), 기록 정리·기술(0.088), 기록 보존(0.060), 기록관리 컨설팅·네트워킹(0.038), 기관·개인의 기록화 활동 지원(0.038) 순으로 나타났다.

'산출요소'의 일관성 비율은 0.006565이다. 디지털아 카이브 구축(0.305)이 가장 중요한 지표로 확인되었고, 기록활용 서비스 제공(0.243), 수

집기록물 수량(0.162), 시설 조성(0.153), 보고서 발간(0.137) 순이었다.

'성과요소'의 일관성 비율은 0.00126이다. 응답자들은 지역 기록화 사업의 성과를 측정하기 위해 기관 본연의 역할 강화(0.367), 대중의 기록관리 인식·참여 향상(0.344), 대중의 기록에 대한 접근성 향상(0.289) 순으로 중요하다고 보았다.

'영향요소'의 일관성 비율은 0.001045이다. 응답자들은 지역 기록화 사업의 영향을 측정하기 위해 지역 정체성 확립(0.453), 지역 기록문화 확산(0.345), 미래 가치 창출(0.202) 순으로 중요하다고 보았다.

(2) 평가요소 및 지표 가중치 산정

가중치는 평가요소(상위계층)와 요소별 지표(하위계층)의 중요도를 곱하여 백분위로 환산한 값이다. '평가요소' 가중치는 투입요소가 31점으로 가장 높았으며, 활동요소 19점, 산출요소 18점, 성과요소 16점, 영향요소 16점이다. '투입지표'는 전담인력 배치가 8점으로 모든 지표 중 가장 높았고, 정규예산 편성 6점, 예산규모 적정성과 법적 근거 제정 각 5점, 지역민 참여, 지역기관 협력체계, 보존시설 확보 각 2점, 자문위원회 구성이 1점이다. '활동지표'는 수집정책 수립 5점, 계획 수립 4점, 기록 조사와 기록 수집 각 3점, 기록 정리·기술 2점, 기록 보존 1점, 컨설팅·네트워킹과 기록화 활동 지원이 각 0.5점이다. '산출지표'는 디지털 아카이브 6점, 기록활용 서비스 4점, 수집기록물 수량 3점, 시설 조성 3점, 보고서 발간 2점이다. '성과

7) 사회과학연구 자동화 <http://www.ssra.or.kr/>

지표'는 기관 본연의 역할 강화 6점, 대중의 기록 접근성 향상과 대중의 기록관리 인식·참여 향상이 각 5점이다. '영향지표'는 지역 정체성 확립 7점, 지역 기록문화 확산 6점, 미래 가치 창출 3점이다. 전체 평가요소와 지표의 가중치는 <표 6>과 같다.

3.3 전문가 심층 면담

3.3.1 면담 참여자 및 자료 수집

면담 참여자는 면담 참여자는 의도적 표본 추출법(purposeful sampling)을 통해 지역 기록화 사업을 3년 이상 담당하였거나, 관련 연구·자문을 수행한 전문가 8명을 선정하였다. 의도적 표본 추출법이란 특정 환경, 사람, 사건

<표 6> 지역 기록화 사업 평가요소와 지표의 가중치

평가요소	가중치	평가지표	가중치
투입요소	31	법적근거 제정	5
		예산규모의 적정성	5
		정규예산 편성	6
		전담인력 배치	8
		자문위원회 구성	1
		지역민 참여	2
		지역기관 협력체계	2
		보존시설 확보	2
활동요소	19	수집정책 수립	5
		계획 수립	4
		기록 조사	3
		기록 수집	3
		기록 정리·기술	2
		기록 보존	1
		기록관리 컨설팅·네트워킹	0.5
		기관(단체)·개인의 기록화 활동 지원	0.5
산출요소	18	수집기록물 수량	3
		보고서 발간	2
		디지털 아카이브 구축	6
		기록활용 서비스 제공	4
		시설 조성	3
성과요소	16	기관 본연의 역할 강화	6
		대중의 기록 접근성 향상	5
		대중의 기록관리 인식 및 참여 향상	5
영향요소	16	지역 정체성 확립	7
		지역 기록문화 확산	6
		미래 가치 창출	3
합계	100		100

등을 의도적으로 선택함으로써 다른 선택에서 얻을 수 없는 중요한 정보를 얻는 방법이자 (Stake, 1995). 특정 현상에 대한 발견과 해석, 서술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질적 조사에 적합한 방법이다(Padgett, 1998). 면담 인원의 경우 특별한 현상에 대해 알아보기자 할 때 3~10명 이면 적정하다(Creswell, 2014). 면담 참여자의 일반 현황은 〈표 7〉과 같다.

면담 자료의 수집은 2024년 11월 1일, 4~6 일까지 일대일 대면 및 비대면 방식으로 실시하였고 면담 시간은 최소 30분에서 최대 70분 정도 소요되었다. 면담은 반구조화된 방식으로 평가지표 중요도 AHP 조사 결과에 대한 참여자들의 동의 여부와 그 이유, 지역 기록화 사업

의 평가방향과 고려사항 등에 대해 질문하였다.

3.3.2 자료 분석 및 면담 결과

심층 면담 자료의 분석은 Elo와 Kyngäs(2008)이 제시한 질적 내용 분석 절차인 연역적 접근법으로 분석하였다. 연역적 접근은 분석의 구조를 선행지식에 근거하여 도출하며 기존 연구를 새로운 맥락에서 검증해 보고자 할 때 유용하다. 이 접근법은 범주화 매트릭스에 따라 자료를 코딩하며, 본 연구는 평가요소, 투입, 활동, 산출, 성과, 영향, 평가방향 및 고려사항 7개 주요 범주(main-categories)에 대해 26개 하위 범주(sub-categories), 49개 코드(개념)를 도출하였다. 이렇게 진행한 범주화는 〈표 8〉과 같다.

〈표 7〉 면담 참여자의 일반 현황

참여자	소속	직책	경력	학력	전공분야
A	기록관	기록연구사	15	석사	기록관리학
B	도서관	기록연구사	6	석사	기록관리학
C	박물관	학예연구관	26	박사	민속학
D	대학교	교수	31	박사	문헌정보학, 기록관리학
E	연구원	원장	25	박사	역사학, 기록관리학
F	연구원	원장	23	박사	기록관리학
G	연구원	연구원	4	석사	기록관리학
H	연구원	연구원	3	석사	기록관리학

〈표 8〉 심층 면담의 내용 분석 결과

주요범주	하위범주	코드
평가 요소	사업의 전제조건인 투입요소	- 인력과 예산 등 투입요소는 사업 운영의 기본적이고 전제적인 요소임
	지속성 측면에서 중요한 활동요소	- 지역 기록화 사업의 지속성 측면에서 과정을 중요하게 생각해야 함 - 지역민들과 함께 하는 활동 자체가 중요하며 이것이 평가에 반영되어야 함
	산출요소에 대한 상반된 관점	- 가시적인 산출물은 성과나 영향을 위한 전제조건으로써 중요함 - 투입이 있으면 당연히 나오는 결과물이며 행정편의주의적인 지표임
	성과와 영향 입증의 중요성	- 단기적 산출물보다 아카이브 역량 등 사람들의 변화가 중요함 - 궁극적인 목적인 성과와 영향이 중요함 - 다만 성과와 영향을 어떻게 측정할 것인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함

주요범주	하위범주	코드
투입 요소	전담인력과 예산의 중요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력과 예산은 기본적이고 최우선적인 투입지표임 - 인력의 배치 및 인력의 역량과 전문성이 중요함 - 인력과 예산이라는 내부 체계를 만들고 지역민 참여, 지역기관 협력 등으로 확대함 - 예산이 많은 기관만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으므로 기관별 특성에 따라 지표를 다르게 적용해야 함
	법적 근거의 필요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장기적인 관점에서 조례·내규 등 법적 근거의 필요성에 대해 공감함 - 법적 근거를 통해 사람이나 정책이 바뀌어도 사업의 지속적인 운영 또는 확대를 보장할 수 있음 - 법적 근거에는 기록주체에 대한 지원과 협력에 대한 내용이 포함되어야 함
	지역민 참여를 통한 지속성·자생성 보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역민 참여는 지역 기록화의 핵심적인 특징임 - 지역 기록화의 지속성과 자생성을 위해서는 지역민의 참여·협력이 필수적임
	자문위원회의 적절한 활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처음부터 외부인의 시각에서 지역 기록화를 시작하는 것은 위험할 수 있음 - 지역과 현장을 잘 모르고 이론에 의한 자문을 한다면 적용하는데 어려움 - 사업의 논의단계 또는 관리단계에서 전문가의 자문과 역할이 중요함
활동 요소	일의 프로세스에 따른 중요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활동요소는 일의 프로세스에 따라 모두 수행되어야 하는 중요한 요소임
	수집정책의 중요성과 방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양질의, 균형 잡힌 자료 수집을 위해 중요한 요소임 - 명확하고 의도적인 기준보다 다양한 기록물을 수집하면서 수집해야 함
	기록 조사·수집의 병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역·주제·기록에 대한 사전 조사가 잘 이루어지면 수집이 수월함 - 지역 기록화는 직접 수집보다 사본 수집을 원칙으로 하는 것이 바람직함
	서비스를 위한 정리·기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리·기술은 공개와 서비스를 위한 기초 작업으로 중요함
	컨설팅·네트워킹 및 기록화 활동 지원을 통한 특성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컨설팅·네트워킹, 기록화 활동 지원은 지속성 측면에서 중요함 - 관련된 세부 지표를 보다 구체화할 필요가 있음
산출 요소	디지털 아카이브의 중요성에 대한 공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집기록물을 대중과 향유할 수 있는 좋은 산출지표이며 중요성에 공감함 - 디지털 아카이브의 품질에 대해서 생각해야 함
	다양한 기록 활용 서비스의 필요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집기록물은 보존이 아닌 활용이 목적이며 서비스가 필요함 - 기록물을 활용한 전시·출판·영상·연극 등 다양한 사례가 많이 나와야 함
	활용을 위한 기록물 수량 확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활용을 위한 전제조건으로써 중요함 - 수량보다 쓸만한 자료들이 얼마나 되느냐가 중요함
	시설 조성의 어려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예산이 많이 확보되어야 하는 산출물이므로 후순위임 - 지역 기록화 결과로 시설이 조성된다면 확실한 산출물임
	행정편의주의적 지표인 보고서 발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업 주관기관 중심의 산출물임 - 기록물을 정리·편집하고 사업에 대한 기록관리라는 점에서는 의미있음
성과 요소	지속성을 위한 기록관리 인식·참여 향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역 기록화 사업의 지속성을 위해 가장 큰 성과는 지역민의 인식과 참여임
	기억기관의 성과로써 기록 접근성 향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억기관의 경우 기록에 대한 접근성을 향상시켜야 함
	자연스러운 성과인 기관 본연의 역할 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록관리 인식과 참여가 향상되면 자연스럽게 기관 역할이 강화될 것임

주요범주	하위범주	코드
영향 요소	지역 정체성 확립의 맹점과 방향	- 대부분 사업에서 지역 정체성 확립을 주요 목표로 삼고 있으나, 사업 주체가 의도하는 정체성이 만들어질 맹점이 있음 - 처음부터 정체성을 특정하기보다 지역민의 다양성을 모으고 축적하는 가운데 정체성을 발견해야 함
	가시적인 영향인 지역 기록문화 확산	- 지역 기록문화 확산은 가장 먼저 가시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지표임
	기록의 사용·재사용과 미래 가치 창출	- 기록의 사용·재사용의 원칙 아래 아카이브 구축과 서비스가 이루어져야 함 - 다양한 문화 콘텐츠 생성에 활용되어야 할 것임
평가방향 및 고려사항	지역 기록화의 특성을 반영한 지표 설계	- 지역 기록화의 특징·주체·사업단계 등을 반영하는 지표가 설계되어야 함 - 지역민 참여, 민관협력 등 거버넌스의 측정이 중요함
	정성적 평가 방안 마련	- 지역 기록화의 다양한 사례를 드러나게 할 수 있는 정성적 평가 장치가 필요함

첫째, ‘평가요소’의 중요도는 ‘투입요소-활동요소-산출요소-성과요소-영향요소’ 순이었으며, 지역 기록화 사업은 산출과 성과에만 집중하기보다 적절한 투입이 있는지, 활동을 잘 하고 있는지를 평가하는 것이 중요하다. 특히 사업의 지속성 측면에서는 ‘과정’을 중요하게 생각해야 하며, 면담 참여자 과반수 이상은 ‘활동요소’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지역 기록화 사업은 지역 민들과 함께 무언가를 한다는 것, 활동 그 자체가 중요하며 이것이 평가지표로써 반영되어야 할 것이다. ‘산출요소’의 경우 다소 상반된 시각으로 볼 수 있는데 가시적인 산출물은 성과나 영향을 위한 전제 조건이지만, 한편 산출은 투입이 있으면 당연히 나오는 결과물일 뿐이며 행정 편의주의적인 지표로 오히려 사업을 질적으로 평가하기 어렵게 만들 수 있다.

둘째, ‘투입요소’의 중요도는 ‘전담인력 배치’가 가장 중요한 지표이었고 ‘정규예산 편성-예산규모 적정성-법적 근거 제정-지역민 참여-보존시설 확보-지역기관 협력체계-자문위원회 구성’ 순이었다. 인력과 예산, 법적 근거는 사업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한 전제이며, 특히 인력 배치 및 인력의 역량·전문성이 강조되었다. 심

층 면담에서는 특히 ‘지역민 참여’ 지표를 강조하는 의견이 개진되었다. 지역 기록화의 특징은 지역민의 자발적인 참여라고 할 수 있으며, 사업의 지속성과 자생성을 위해서는 지역민의 참여와 협조가 중요한 지표로써 다루어져야 할 것이다.

셋째, ‘활동요소’의 중요도는 ‘수집정책 수립-계획 수립-기록 조사-기록 수집-기록 정리·기술-기록 보존-기록관리 컨설팅·네트워킹-기관(단체)·개인의 기록화 활동 지원’ 순이었다. 면담 참여자들은 활동요소의 경우 어떤 지표가 더 중요하고 우선순위라기보다 일의 프로세스에 따라 중요하다고 보았다. 수집정책은 무엇을, 어떻게 수집할지에 대한 설계로 양질의, 균형 잡힌 자료 수집을 위해 중요하다. 수집정책의 수립 방향에 대해서도 시사점을 얻을 수 있었는데, 지역 기록화는 초기부터 명확하고 의도적인 수집 기준을 적용하는 것은 불필요하거나 현실적이지 않으며, 지역민 각자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기록물을 다양하게 수용하고 망라적으로 수집하는 것이 필요하다. 즉 시범 활동을 통해 수집 정책을 점진적으로 정리해나가야 한다. 맥락 있는 자료, 양질의 자료를 수집하기 위해서 조사 활

동이 선행되어야 하며 기록 조사와 수집은 병행되어야 하는 활동이다. 기록관리 컨설팅·네트워킹과 기관(단체)·개인의 기록화 활동 지원은 후순위이긴 하나, 지역 기록화의 특징을 반영하는 활동이자 지속성 측면에서 중요하다.

넷째, ‘산출요소’는 ‘디지털아카이브 구축·기록활용 서비스 제공·수집기록물 수량·시설 조성·보고서 발간’ 순으로 중요하였다. 면담 참여자들은 모두 ‘디지털아카이브 구축’의 중요성에 공감하였고, 기록물을 활용한 창의적이고 다양한 서비스가 많이 나와야 한다고 하였다. ‘보고서 발간’은 사업 수행기관 중심의 산출물이라는 점에서 후순위로 지적되었다.

다섯째, ‘성과요소’는 ‘기관 본연의 역할 강화·대중의 기록관리 인식·참여 향상·대중의 기록에 대한 접근성 향상’ 순으로 중요하였다. 심층 면담에서는 ‘대중의 기록관리 인식·참여 향상’ 지표에 대해 많은 논의가 이루어졌다. 지역 민의 기록에 대한 인식과 참여는 중요한 요소이며 이것이 확보된다면 기관에 자료 기증, 기록화 참여 등이 유도되는 선순환이 일어날 것이며 이것이 곧 사업의 지속성을 담보하는 방법이기도 하다.

여섯째, ‘영향요소’는 ‘지역 정체성 확립·지역 기록문화 확산·미래 가치 창출’ 순으로 중요하였다. 면담 참여자들은 대부분 지역 기록화 사업이 ‘지역 정체성 확립’을 주요 목표로 삼고 있지만, 사업 주체가 의도하는 정체성이 만들어질 맹점이 있다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고 하였다. 처음부터 정체성을 특정하기보다 지역과 지역 민의 다양성을 모으고 축적하는 가운데 정체성을 발견해야 한다. ‘지역 기록문화 확산’은 지역 민 대상 자료 수집, 아카이빙 활동과 함께 일어

나는 현상으로 비교적 가시적인 영향지표이며, 지역 기록은 다양한 문화 콘텐츠의 원형으로써 미래 가치를 창출할 수 있어야 한다.

마지막으로 지역 기록화 사업의 평가방향과 고려사항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였다. 지역 기록화의 특징인 지역민 참여, 민관협력 등을 어떻게 측정할 것인지 그 지표가 구체화되어야 한다. 또한 지역 기록화는 정량적 평가 외에 다양하고 의미 있는 활동과 사례, 성과와 영향을 드러낼 수 있는 정성적·주관적 평가 장치도 필요할 것이다.

4.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지역 기록화 사업의 평가지표를 개발하고자 하는 것으로 지역 기록화 관련 국내 법령 및 국내·외 사례 조사를 통해 세부 요소를 수집하여, 지역 기록화 사업의 논리 모델을 수립하였다. 지역 기록화 사업의 논리 모델은 투입(법적 근거, 예산, 인력, 시설), 활동(수집정책 수립, 계획 수립, 기록 수집, 기록 관리, 컨설팅·지원), 산출(수집기록물 수량, 보고서 발간, 디지털 아카이브 구축, 기록활용 서비스 제공, 시설 조성), 성과(기관 본연의 역할 강화, 대중의 기록에 대한 접근성 향상, 기록관리 인식·참여 향상), 영향(지역 정체성 확립, 지역 기록문화 확산, 미래 가치 창출) 요소로 구성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지역 기록화 사업의 평가요소로 투입, 활동, 산출, 성과, 영향 5개 요소 및 27개 세부 지표를 도출하였다. 도출된 지표의 검증을 위해 전문가 대상 AHP 설문 조사 및 심층 면담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지역 기록화 사

업의 ‘평가요소’ 중요도는 ‘투입요소’(0.312)가 1순위이었고, 지역 기록화는 산출과 성과에 집중하기보다 적절한 투입이 있는지, 활동을 잘하고 있는지 평가하는 것이 중요하다. ‘투입지표’ 중요도는 ‘전담인력 배치’(0.263)가 1순위로 인력의 배치 및 역량이 강조되었다. ‘활동지표’ 중요도는 수집정책 수립(0.262), 기록 수집, 기록 정리·기술 등 일의 순서에 따라 중요하였다. ‘산출지표’ 중요도는 ‘디지털 아카이브 구축’(0.305)이 가장 높았는데, 디지털 아카이브는 수집기록물을 대중과 공유할 수 있는 좋은 산출물이다. ‘성과지표’로 ‘기관 본연의 역할 강화’ (0.367)가 가장 중요하였다. ‘영향지표’로 ‘지역 정체성 확립’(0.453)이 가장 중요하나, 한편 사업 주체가 의도하는 정체성이 만들어지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

그동안 지역 기록화 사업은 그 양적 확장에 비해 사업을 평가할 수 있는 현장의 평가도구가 전무하였으며 관련 연구도 이루어지지 않았다. 본 연구는 지역 기록화 사업에 대한 평가를 시도하고 논리 모델을 기반으로 지역 기록화에 초점을 맞춘 평가지표를 개발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또한 도출된 평가지표에 대해 양적·질적 검증을 실시하여 연구의 타당성을 확보하였다.

더불어 본 연구는 몇 가지 한계점을 인식하

고 후속 연구를 제안하였다. 본 연구에서 실시한 평가지표의 검증은 지역 기록화 사업 관련 전문가 집단을 대상으로 하여 사업의 주관기관 또는 관리자 중심의 자료가 수집되었다고 할 수 있으며, 지역 기록화의 주요 주체 중 하나인 지역민의 인식과 의견을 포괄해야 할 것이다. 둘째, 본 연구는 지역 기록화 사업의 평가를 시도한 기초 연구로 일반적·범용적 평가지표를 도출하는 데 목적을 두었다. 지역 기록화 사업은 기록물관리기관, 도서관, 박물관, 지자체 등 다양한 주체에 의해 수행되고 있으며 수행기관 별 특징에 따라 지표 해석과 평가 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 따라서 사업의 수행기관별, 광역·기초 단위별 특징을 반영하여 보다 구체화된 평가지표가 제시될 필요가 있다. 셋째, 향후 평가지표를 특정 기관과 사례에 적용하여 실행 가능성을 검증·개선해나가야 할 것이다. 본 연구를 통해 도출된 평가지표를 검토하여 보다 정확한 가중치와 배점, 정량·정성지표 등 세부 평가기준과 방법, 평가자·피평가자 등 평가체계를 수립해나가야 할 것이다.

본 연구의 결과와 시사점은 지역 기록화 사업의 기획, 운영 및 평가에 활용되어 지역 기록화 사업의 지속 가능성을 향상시키는 데 도움이 될 것이며, 향후 후속 연구가 활발히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한다.

참 고 문 헌

- 국립민속박물관 (2007). 김성원씨댁 생활재 조사보고서(제주민속조사보고서).
- 권순명, 이승희 (2009). 지역 아카이빙을 위한 기록화방안 연구. 기록학연구, (21), 41-84.
- <https://doi.org/10.20923/kjas.2009.21.041>

- 김화경 (2012). 마을 아카이브 구축을 위한 수집 전략: 부산 산복도로 아카이브 사례를 중심으로. *한국기록관리학회지*, 12(2), 143-161. <https://doi.org/10.14404/JKSARM.2012.12.2.143>
- 라영재 (2020). 정책평가의 이론기반평가: 평가원칙과 적용의 실제: 정부업무평가와 공공기관 경영평가 사례를 중심으로. *정책분석평가학회보*, 30(3), 43-78.
<http://dx.doi.org/10.23036/kapae.2020.30.3.003>
- 박수정, 모숙례, 홍동욱 (2011). 교육전문직의 역할에 대한 AHP 분석. *한국교원교육연구*, 28(1), 221-242.
10.24211/TJKTE.2011.28.1.221
- 서울기록원 (2016). 서울기록화 수집전략 개발용역 완료보고서(51-6110000-001494-01).
- 서울역사박물관 (2021). 서울생활문화 자료조사 (사업)계획.
- 설문원, 김정현 (2013). 공간 중심의 연계형 기록화의 실행방안: 부산지역 동해남부선을 사례로. *기록학 연구*, 36, 233-269. <https://doi.org/10.20923/kjas.2013.36.233>
- 손원태 (2016). 지역정체성 확립을 위한 도시 아카이빙에 관한 연구: 대전광역시 원도심을 중심으로. *석사학위논문*, 한국외국어대학교 대학원.
- 신유림 (2019). 증평군 기록관은 증평을 닮았다. *한국기록관리학회지*, 19(1), 282-287.
<https://doi.org/10.14404/jksarm.2019.19.1.282>
- 신정아 (2020). 지역 디지털 아카이브 구축: '경기도 메모리' 사례. *한국기록관리학회지*, 20(3), 161-166.
<http://dx.doi.org/10.14404/JKSARM.2020.20.3.161>
- 엄소영, 김혜영, 명현, 김용 (2017). 민간·공동체아카이브 구축을 위한 수집정책 개발에 관한 연구: 대구 약전골목을 중심으로. *한국문현정보학회지*, 51(2), 179-205.
<https://doi.org/10.4275/KSLIS.2017.51.2.179>
- 엄수용 (2020). 도시기록 아카이브 설립방안 연구: 성남시의 도시개발을 중심으로. *석사학위논문*, 한국외국어대학교 대학원.
- 여진원, 장우권 (2016). 도시기록화 사례연구: 광주광역시 남구 양립동의 근현대 선교사를 중심으로. *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 47(2), 387-416. <https://doi.org/10.16981/kliss.47.2.201606.387>
- 연천군 (2022). 연천군 문화유산 스토리텔링북 출판 및 아카이브 용역 과업지시서.
- 유혜림 (2018). 지역기록화를 위한 지방기록물관리기관의 역할에 관한 연구: 강원아카이브 협동조합 사례를 중심으로. *석사학위논문*, 한국외국어대학교 대학원.
- 윤명희 (2023). 시민과 함께 하는 기록화 사업: 괴주중앙도서관 사례. *한국기록관리학회지*, 23(3), 165-173. <https://doi.org/10.14404/JKSARM.2023.23.3.165>
- 이경래 (2015). 마을공동체 아카이브의 거버넌스 모델 연구. *기록학연구*, 45, 51-82.
<https://doi.org/10.20923/kjas.2015.45.051>
- 이미숙, 이태환, 김진수 (2010). AHP를 활용한 기술이전 측정항목 중요도에 관한 연구. *한국산학기술 학회논문지*, 11(8), 2758-2765. <https://doi.org/10.5762/kais.2010.11.8.2758>

- 이성우, 장성희 (2020). 지방자치단체 남북교류협력사업 평가지표 개발 및 평가. 경기연구원.
- 이정연 (2021). 주민 주도 기록화 실천의 성과와 의미: 증평 아카이빙 프로젝트를 중심으로. *기록과 정보 · 문화연구*, 13, 95-137. <https://data.doi.or.kr/10.23035/KAICS.2021.1.13.095>
- 이희숙 (2019). 지역문화자원 아카이빙 모형 설계와 적용. 박사학위논문, 한국외국어대학교 대학원.
- 인천광역시 (2018). 인천광역시 도시경관 변천기록 및 관리시스템 구축 용역 기획보고서 (54-6280000-000403-01).
- 최윤진 (2011). 성미산마을 아카이빙 체계방안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명지대학교 기록정보과학전문대학원.
- 평택시 (2020). 평택시 주한미군 역사 아카이브 구축 기본계획 수립 및 조사수집 용역 과업지시서.
- 하승용 (2019). 도시경관 기록화사업 체계 및 기록방법 연구. 박사학위논문, 충남대학교 대학원.
- 홍명화, 이해은 (2023). 지방자치단체의 지역 기록화 사업 현황과 지속가능성 검토. *한국기록관리학회지*, 23(2), 69-94. 10.14404/JKSARM.2022.23.2.069
- 木下 榮藏, 大屋 隆生 (2007). 戰略的意意思決定手法 AHP. 권재현 역 (2012). 전략적 의사결정기법 AHP. 서울: 청람.
- Andersen, L. B., Pedersen, L. H., & Boesen, A. (2016). Performance in public organizations: clarifying the conceptual space. *Public Administration Review*, 76(6), 852-862.
- Cox, R. J. (2001). Documenting Localities: A Practical Model for American Archivists and Manuscript Curators. Lanham, Md.: Scarecrow Press.
- Creswell, J. W. (2003). Research Design: Qualitative, Quantitative, and Mixed Methods Approaches.
- 김영숙 외 옮김 (2011). 연구방법: 질적 · 양적 및 혼합적 연구의 설계. 서울: 시그마프레스.
- Creswell, J. W. (2014). A Concise Introduction to Mixed Methods Research. 김동렬 역 (2017). 알기 쉬운 혼합연구방법. 서울: 학지사.
- Elo, S. & Kyngäs, H. (2008). The qualitative content analysis process. *Journal of Advanced Nursing*, 62(1), 107-115.
- McLaughlin, J. A. & Jordan, G. B. (1999). Logic models: a tool for telling your program's performance story. *Evaluation and Program Planning*, 22(1), 65.
- Moynihan, D. P., Fernandez, S., Kim, S., LeRoux, K. M., Piotrowski, S. J., Wright, B. E., & Yang, K. (2011). Performance regimes amidst governance complexity. *Journal of Public Administration Research and Theory*, JPART21, i141-i155.
- Padgett, D. K. (1998). Qualitative Methods in Social Work Research: Challenges and Rewards.
- 유태근 역 (2001). 사회복지 질적 연구 방법론. 서울: 나남.
- Saaty, R. W. (1987). The analytic hierarchy process-what it is and how it is used. *Mathematical Modelling*, 9(3), 161-176.

- Saaty, T. L. (1990). How to make a decision: the analytic hierarchy process. European Journal of Operational Research, 48, 9-26.
- Society of American Archivists (n.d.). Dictionary of Archives Terminology. Available: <https://dictionary.archivists.org>
- Stake, R. E. (1995). The Art of Case Study Research. 흥용희, 노경주, 심종희 역 (2000). 질적 사례 연구. 서울: 창지사.
- Wholey, J. S., Hatry, H. P., & Newcomer, K. E. (2010). Handbook of Practical Program Evaluation. (3rd ed.). San Francisco: Jossey-Bass.
- W.K Kellogg Foundation (2004). Logic Model Development Guide. W.K. Kellogg Foundation. Available: <https://wkkf.issuelab.org/resource/logic-model-development-guide.html>

• 국문 참고자료의 영어 표기

(English translation / romanization of references originally written in Korean)

- Choi, Yoon-Jin (2011). A Study on Archiving of Sungmisan Community. Master's thesis, Myongji University.
- Eizo Kinoshita, Takao Ooya (2007). Translated by Jae-Hyun Kwon (2012). AHP (Analytic Hierarchy Process) as a Strategic Decision-Making Method. Seoul: Chungram.
- Ha, Seung-Yong (2019). A Study on Urban Landscape Documentation Project Systems and Documentation Methods. Doctoral dissertation, Chungnam National University.
- Hong, Myunghwa & Lee, Hye-Eun (2023). A study on the current status and sustainability of regional documentation programs conducted by local governments. Journal of Korean Society of Archives and Records Management, 23(2), 69-94.
10.14404/JKSARM.2022.23.2.069
- Incheon Metropolitan City (2018). Planning Report on Urban Landscape Photography Documentation and Management System Establishment in Incheon (54-6280000-000403-01).
- Kim, Hwa-Kyoung (2012). Acquisition strategy for constructing local archives: the case of busan sanbokdoro archives. Journal of Korean Society of Archives and Records Management, 12(2), 143-161. <https://doi.org/10.14404/JKSARM.2012.12.2.143>
- Kwon, Soon-Myung & Lee, Seung-Hwi (2009). A study on documentation strategy for archiving locality. The Korean Journal of Archival Studies, (21), 41-84.
<https://doi.org/10.20923/kjas.2009.21.041>
- Lee, Hui-Suk (2019). Design and Application of Local Cultural Resource Archiving Model: A

- Case Study on the Application of Seongbuk-gu. Doctoral dissertation, Graduate School of Hankook University of Foreign Studies.
- Lee, Jung Yeon (2021). The achievements and meanings of resident-led archiving practice: focusing on jeungpyeong archiving project. *The Korean Journal of Archival, Information and Cultural Studies*, 13, 95-137. <https://data.doi.or.kr/10.23035/KAICS.2021.1.13.095>
- Lee, Kyong Rae (2015). The politics and governance of ‘maeul’ community archives in south korea. *The Korean Journal of Archival Studies*, 45, 51-82. <https://doi.org/10.20923/kjas.2015.45.051>
- Lee, Mi-Sook, Lee, Tae-Hwan, & Kim, Jin-Su (2010). An analysis on the important weight of evaluation items in technology transfer using AHP. *Journal of Korea Academia-Industrial Cooperation Society*, 11(8), 2758-2765. <https://doi.org/10.5762/kais.2010.11.8.2758>
- Lee, Sungwoo & Jung, Sunghee (2020). Evaluation Index System and Evaluation of Inter-Korean Cooperative Projects by Local Governments. Gyeonggi Research Institute.
- National Folk Museum of Korea (2007). A Living Goods of Household Mr.Kim Sung-won's (A Survey Report of Households Jeju-do).
- Park, Soojung, Mo, Sookrye, & Hong, Dongwook (2011). Prioritizing the roles of educational supervisor using AHP method. *The Journal of Korean Teacher Education*, 28(1), 221-242. <https://doi.org/10.24211/TJKTE.2011.28.1.221>
- Pyeongtaek City (2020). Task Description on Planning of USFK Historical Archive and Collection Research Project.
- Ra, Youngjae (2020). Research on the theory-based evaluation of policy evaluation: the practice of evaluation principles and application: focused on evaluation of government performance and evaluation system of public institution performance cases. *Korean Journal of Policy Analysis and Evaluation*, 30(3), 43-78. <http://dx.doi.org/10.23036/kapae.2020.30.3.003>
- Seol, Moon-won & Kim, Jeong-hyeon (2013). Implementing space-based networked documentation for donghae-nambu railway areas in busan metropolitan city. *The Korean Journal of Archival Studies*, 36, 233-269. <https://doi.org/10.20923/kjas.2013.36.233>
- Seoul Metropolitan Archives (2016). Final Report on the Development of a Collection Strategy for Seoul Archiving.
- Seoul Museum of History (2021). Seoul Living Culture Research Project Plan.
- Shin, JeongA (2020). Building local digital archives: the case of “gyeonggi-do memory”. *Journal of Korean Society of Archives and Records Management*, 20(3), 161-166. <http://dx.doi.org/10.14404/JKSARM.2020.20.3.161>

- Shin, Yooram (2019). The jeungpyeong-gun archives and records management office resembles jeungpyeong. *Journal of Korean Society of Archives and Records Management*, 19(1), 282-287. <https://doi.org/10.14404/jksarm.2019.19.1.282>
- Son, Won-tae (2016). A Study on the Urban Archiving for the Establishment of Local Identity: Focused on Old Downtown in Daejeon City. Master's thesis, Graduate School of Hankook University of Foreign Studies.
- Um, So-Young, Kim, Hye-Young, Myung, Hyun, & Kim, Yong (2017). A study on development of acquisition policy for establishing private and community archive: focused on daegu yakjeon alley. *Korean Society for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51(2), 179-205. <https://doi.org/10.4275/KSLIS.2017.51.2.179>
- Um, Su-yong (2020). City Record Archive Establishment Method Research: Based on Seongnam City Development Process. Master's thesis, Graduate School of Hankook University of Foreign Studies.
- Yeo, Jin-Won & Chang, Woo-Kwon (2016). A case study on the urban documentation: centers on the modern missionary of yangrim-dong area in nam-gu, gwangju. *Journal of Korean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Society*, 47(2), 387-416. <https://doi.org/10.16981/kliss.47.2.201606.387>
- Yeoncheon-Gun (2022). Task Description on Cultural heritage Storytelling Book Publication and Archive Project.
- Yoon, Myung-Hee (2023). Collaborative archiving project with citizens: a case study on the paju central library. *Journal of Korean Society of Archives and Records Management*, 23(3), 165-173. [10.14404/JKSARM.2023.23.3.165](https://doi.org/10.14404/JKSARM.2023.23.3.165)
- Yu, Hye-Rim (2018). A Study on the Role of Local Government Archives for Regional Documentation: Case of Kangwon Archives Cooperative. Master's thesis, Graduate School of Hankook University of Foreign Studies.